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당신을 기다리는 등불

주님, 당신은 언제 오실까요.

밤은 깊어지고 등불은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슬픔 곁에 머물렀던 시간,
미워하던 이를 조용히 용서했던 순간,
그 작은 사랑들이 기름 되어 제 마음에 고입니다.

기다림이 길어도 등불을 놓지 않게 하소서.

깨어 있음은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불빛을 꺼뜨리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는 일.
마침내 당신이 오실 때, 그 빛으로 당신을 맞이하게 하소서.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부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 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하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11/01/2026 기준
현재 기부 금액 - $34,265
현재 참가 인원 - 78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34	예물 준비 성가: 217, 218	성체 성가: 496, 498	파견 성가: 463

모든 성인 대축일(11/1)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32명	54명	244명	138명	47명	515명

성녀 마더 데레사(1)

가난한 이들 안에서 만난 예수님



세상은 그를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거리에서 죽어 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 주고, 병든 이의 상처를 씻어 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 곁을 지킨 마더 데레사. 그러나 그가 평생을 바친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배운 자비가 깊은 기도 안에서 자라나, 마침내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마더 데레사는 1910년 8월 26일, 오늘날 북마케도니아의 스코페에서 알바니아계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본명은 아녜스 곤자 보야지우.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어머니 드라나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딸은 어머니의 삶을 통해 사랑이란 남는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 주는 일임을 배웠다.

열여덟 살이 된 1928년, 아녜스는 선교사가 되려는 열망으로 아일랜드의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했다. 이때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따라 '데레사'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이듬해 인도로 향한 그는 콜카타의 성 마리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훗날 교장으로 봉사했다. 수녀로서의 삶은 충만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수녀원 담장 밖에는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1946년 9월 10일, 피정을 위해 다르질링으로 가던 기차 안에서 데레사 수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부르심을 체험했다. 그는 이를 '소명 안의 소명'이라고 불렀다. 이미 수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초대였다.

오랜 기도와 식별 끝에 허락을 받은 그는 1948년 로레토 수녀원을 떠났다. 푸른 줄무늬가 있는 흰 사리를 입고 기본적인 간호 교육을 받은 뒤 콜카타 빈민가로 향했다. 교실도 교과서도 마련하기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가르쳤고, 거리에 누운 병자들을 찾아 돌보았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으나, 고통받는 사람 앞에 멈추어 설 마음만은 분명했다.

데레사 수녀에게 가난한 이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 그가 세상에 보여 준 첫 번째 기적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잊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삶으로 전한 사랑이었다.

공지 사항

1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11월 23일은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 되어 영적, 물적 봉헌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당 로비에 봉헌함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신자께서는 신부님께 드리는 영적 · 물적 봉헌을 준비된 용지와 봉투에 넣어서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 기간: 10/17 – 11/15
- 봉헌일: 11/22(주일) 오전 10시 미사 중

2 미사 안내

A. 재외동포를 위한 초청 공연 관계로 11/19(목) 오후 7시 미사가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B. Thanksgiving 관계로 11/26(목) 오후 7시 미사가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Shoeboxes of Joy 2026

대건회에서 Shoeboxes of Joy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후원 기한: 11/15(주일)까지

후원 목록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외동포를 위한 초청 공연 안내

- 일시: 11월 19일(목) 저녁 6시 30분
- 공연: 컨템포디보(팝페라 보컬 그룹)
- 주최: 시애틀 총영사관 & 광역 시애틀 한인회
- 주관: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판공성사 안내

2026년 성탄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구역	날짜	시간	장소
Lynnwood	11/07(토)	4:00 PM	성당
Mukilteo	11/20(금)	5:30 PM	구역 가정
Shoreline + Mill Creek	11/21(토)	11:00 AM	성당
Bothell	12/05(토)	3:00 PM	구역 가정
Seattle	12/10(목)	4:00 PM	구역 가정
Sammamish	12/11(금)	5:30 PM	구역 가정
Bellevue	12/12(토)	4:00 PM	구역 가정
Redmond	12/19(토)	4:00 PM	구역 가정

6 음식 봉사

- 음식 봉사: Bellevue
- 일시: 11/8(주일)
- 메뉴: 떡만둣국

7 성탄 미사 Chamber 단원 모집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와 25일 성탄 미사에 함께하실 Chamber 단원을 모집합니다.

- 신청: 11/14(토)까지
- 문의: 송 요안나 425.445.1230

8 미사 반주자 모집

하느님을 찬미하며 미사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실 교우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 부문: 평일 미사,
  토요일 저녁 미사(주일 미사) 반주자
- 문의: 반주단장 김로사 425.442.7255

9 한국학교 교사 / 보조 교사 모집

성 김대건 한국학교 2026–2027학년도 교사 및 보조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 sakks10@gmail.com

10 성탄 한마음 잔치 공연 신청

- 신청 기한: 11/15(주일)까지
- 신청 접수: 공연에 참가할 개인 및 단체는 사무실 앞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 문의: WYD 준비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425-786-4082

11 베드로회 모임

- 일시: 11/15(주일) 8시 미사 후
- 장소: 101호실

입당송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 지혜 6,12-16

<지혜를 찾는 이들은 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2독서 ····· 1 테살 4,13-18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5,1-13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억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퀸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퀸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 디 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 & 편집/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목요일 (12/3/26) 유아세례: 오후 3시 토요일 (12/12/26)

[일반알현] 교황: 민족들이 겪는 불의와 상처를 치유하는 정치는 희망의 표징입니다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11월 4일 수요 일반알현에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이 제시하는 경제 발전과 노동, 정치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을 설명하셨다. 교황께서는 언제나 공동선을 지향해야 하는 정치 권위의 역할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개인적·사회적 소명에 봉사한다고 강조했다.

레오 14세
일반알현
성 베드로 광장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IV.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8. 신앙과 사회생활, 정치생활 및 경제생활(GS, 63-76항)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회적 차원은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을 이루는 필수적인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통해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이하 GS)은 제2부 제3장과 제4장에서 이를 상기시킵니다. 이 두 장은 각각 경제·사회생활과 정치 공동체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역들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무엇보다도 불공정하고 피조물을 존중하지 않는 경제 발전에서 비롯되는 불균형이 세계 평화에 초래하는 위험을 지적합니다(GS, 63항 참조). 이는 앞날을 내다본 통찰이었으며, 안타깝게도 지난 세기 후반에 현실로 드러났고 오늘날에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문헌은 경고합니다. "경제 사회 생활의 수많은 개혁이 요구되고, 모든 사람에게 자세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같은 곳).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은 경제 발전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경제 발전은 언제나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며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GS, 64-65항 참조). 여기에서 이미 통합적 인간 발전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개념은 훗날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년)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호소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GS, 66항 참조).

경제의 중심에는 노동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가족의 생계를 꾸리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합니다. 노동은 결코 개인이나 공동선, 피조물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과제는 모든 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업과 착취, 건강과 생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노동 조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GS, 67항 참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단체를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갈등에 직면할 때에는 대화와 비폭력적 행동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GS, 68항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공의회는 교회의 사회 교리를 이루는 근본 원칙 가운데 하나인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상기시킵니다(GS, 69항 참조). 그리고 이 원칙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이러한 투자와 경제생활의 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누구나 이러한 목적을 명심하고 자신의 막중한 의무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곧, 한편으로는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의 품위 있는 생활에 요구되는 필수품을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예견하여 개인이든 집단이든 현재의 소비 요구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요청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GS, 70항).

이어서 「기쁨과 희망」은 정치 공동체에 관해 다루면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긍정적인 징표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인간 존엄에 대한 의식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공공 생활에서 인권을 더 잘 보장하여 주는 정치 법률 제도를 확립하려는 열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GS, 73항).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동선이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더 충만하게 더욱 쉽게 자기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입니다(GS, 74항). 정치 권위의 행사는 언제나 이러한 공동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정치 권위는 지역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구조와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나 온 인류 가족의 선익을 지향해야 합니다(같은 곳 참조).
「기쁨과 희망」은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합니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그러나 양자는, 자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사회적 소명에 봉사한다. 양자는 서로 건전한 협력을 더욱 증진할수록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이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GS, 76항).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제와 정치에 헌신하는 것은 평화를 건설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상기시켜 주셨듯이, "전쟁은 정치와 인류의 실패, 치욕스러운 항복, 악의 세력에 대한 패배입니다"(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61항). 반대로, 민족들이 겪는 상처와 불의를 당하는 이들을 보살피는 정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훌륭한 신앙의 증거를 보여 준 이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교회 사회 교리에 대한 양성을 다시금 활성화하도록 거듭 당부합니다.

번역 박수현